

# 2024.08.14.(수) 증권사리포트

비율

기술적 해자를 반영한 실적, 향후 성장성에 기대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2Q24 OPM 63.7% 시현

비율의 2Q24 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152억원(YoY, +43.3%), 영업이익 97억원(YoY, +70.2%)을 시현했다. QoQ 성장 또한 매출액 +35.7%, 영업이익 +49.2%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실적 성장의 원인은 기술이전 수입 효과가 컸으며 2Q24 OPM 63.7%, 1H24 OPM 61.3%의 고마진을 기록했다. 비율은 최근 북미 ITC 소송 이슈 관련하여 기술이전 수입을 1Q24부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인식해왔으며 기술이전 수입은 1Q24 14억원 → 2Q24 3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분기에 인식한 기술이전 수입은 이루다로부터 수령한 특허 분쟁 관련 합의금이며 향후 실적에 인식될 금액 없이 전액 2Q24 실적에 반영되었다. 기술이전 수입을 제외하고도 1Q24 매출액 98억원, 영업이익 51억원(OPM 52%), 2Q24 매출액 115억원, 영업이익 60억원(OPM 52.3%)로 전년 동기 대비 장비 판매의 점진적 증가 및 고마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 눈여겨 봐야할 포인트

1H24 장비 매출액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141억원 대비 다소 아쉬운 숫자였으나, 1H23 경우 북미 시장 진출 초기 시점에 따라 실핼X 장비의 물량이 발주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이 존재했다. 하반기는 북미 지역의 장비 판매가 집중되는 계절적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북미 지역 장비 판매량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회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핼X의 북미지역을 제외한 중국, 태국 등 기타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3월 비율의 중국 NMPA 인증 획득과 더불어 일본 시장에서 마이크로니들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 실핼X의 확장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율의 국가별 과거 매출액은 북미 향 비중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 향 매출이 성장 중이다. 특히 실핼X 아시아 매출 비중은 과거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마이크로니들 시장 개화로 2Q24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진출 국가 다변화에 따라 실적 성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실핼X 매출액이 본격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예전부터 중국 내 스칼렛 장비를 통한 레퍼런스를 지속 쌓아온 점을 고려하면 2H24에는 실핼X, 스칼렛의 중국 향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침습 고주파장비 셀리뉴는 지난 6월초 공식 런칭 되었으며, HIFU 기반 듀오타이트 연내 출시가 기대됨에 따라 신제품 장비 효과는 25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매출액 598억원, 영업이익 328억원 전망

비율에 대해 투자 의견, 목표주가 유지하며 2024년 매출액 598억원(YoY, +40.7%), 영업이익 328억원(YoY, +47.1%)으로 예상한다. 북미 현지 업무 사정으로 인해 연기된 ITC 예비판결은 오는 9월 초 진행될 예정이며 2024F 추정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기술 로열티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른 장비 매출 성장세 및 신규 국가 향 진출 확대 추이에 주목해야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1.1	42.5	59.8	83.1
영업이익	12.9	22.3	32.8	45.9
세전이익	13.8	26.1	36.0	47.8
순이익	11.5	21.6	29.9	38.2
EPS	198	370	512	655
증감률	147.50	86.87	38.38	27.93
PER	16.29	22.97	18.91	14.78
PBR	4.81	8.24	6.35	4.48
EV/EBITDA	11.27	19.10	14.08	9.44
ROE	35.06	44.89	41.80	36.55
BPS	670	1,031	1,524	2,160
DPS	10	18	18	18

도표 2. 중국 NMPA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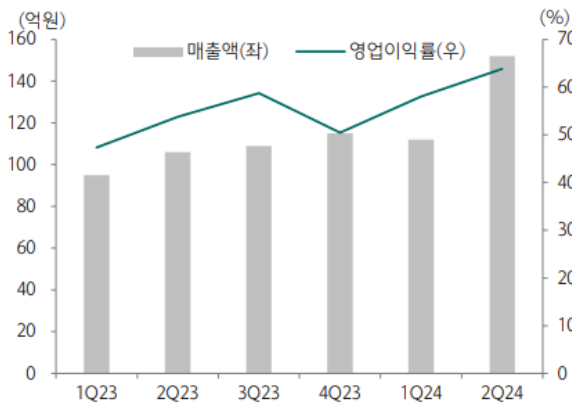
자료: 비올, 하나증권

도표 3. 신제품 HIFU 기반 듀오타이트(DUOT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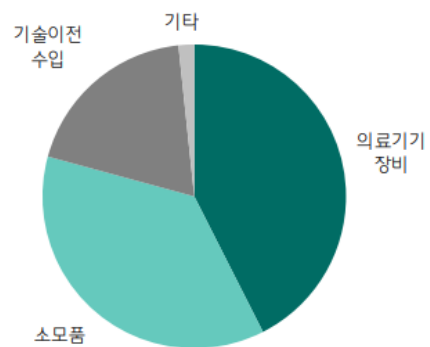
자료: 비올, 하나증권

도표 4. 비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하나증권

도표 5. 1H24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



자료: 하나증권



삼성물산

밸류업으로 이어질 기초체력

[출처] IBK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 2Q24 Review: 컨센서스 상회

2024년 2분기 삼성물산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11.0조 원(YoY +4.0%), 영업이익 9,003억 원(YoY +16.6%)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인 8,128억 원 대비 10.8% 상회하였다. 수익성이 증가한 이유는 전 사업부의 안정적 이익 지속과 바이오 부문의 성장에서 기인한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4공장 가동 효과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수령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건설부문은 매출액 4.9조 원 영업이익 2,83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관계사 주요 현장 준공 단계 진입에 따라 감소하였고, 하반기 매출액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수주는 6.6조 원(국내 5.9조 원, 해외 0.7조 원)을 기록하며, 연간 가이드스 36.7%를 달성했다. 주택 분양 계획은 연초 4,560세대에서 6,117세대로 증가하였고, 상반기 분양은 1,557세대 기록하며 상향된 계획의 25.5%를 달성했다.

## 적극적 주주환원 기대

당사는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8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영업가치와 관계사들의 지분가치 합산을 할인하여 산출했다. 당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배당수익으로 창출된 현금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주주환원 계획과 별개로, ▶ 정부의 밸류업프로그램과 연동된 새로운 정책 발표와 ▶ 소각 예정인 보통주 15,615,126주를 고려한다면 ROE 개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현 동사의 주가는 12M Fwd. P/B 0.60배, P/E 10.25배 수준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43,162	41,896	41,612	42,578	42,950
영업이익	2,529	2,870	3,026	3,294	3,264
세전이익	3,335	3,549	3,789	4,307	4,311
지배주주순이익	2,044	2,218	2,250	2,525	2,527
EPS(원)	10,843	11,824	12,387	14,084	14,098
증가율(%)	25.0	9.0	4.8	13.7	0.1
영업이익률(%)	5.9	6.9	7.3	7.7	7.6
순이익률(%)	5.9	6.5	6.8	7.6	7.5
ROE(%)	7.2	7.3	6.3	6.5	6.2
PER	10.5	11.0	11.4	10.0	10.0
PBR	0.8	0.7	0.7	0.6	0.6
EV/EBITDA	8.3	8.0	7.8	6.7	6.2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크래프톤

착한 게임의 궁극적인 승리

[출처] 유안타증권 이창영 애널리스트

2Q24 Review

매출액 7,070억원(YoY +83%), 영업이익 3,321억원(YoY +153%), 지배순이익 3,419억원 (YoY +166%). 시장기대치 상회

[PUBG 온라인]: 맵 업데이트, 뉴진스 콜라보 등 매력적인 콘텐츠로 1H24 MAU YoY +40%, PU YoY +130%, 매출액 1,913억원 YoY +64%.

[PUBG 모바일]: 성장형 스킨, 중동 인기 배우 콜라보, BGMI는 지역 확장 및 현지화 콘텐츠 등으로 1H24 DAU YoY +30%, PU YoY +40%, 매출액 4,999억원 YoY +104%. 매출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 47.0% 실현. Q-Q +0.3%pt, Y-Y +13.0%pt 개선

### 하반기 전망

[PUBG 온라인]: 7월에도 역대급 트래픽 유지. 람보르기니 콜라보, 다양한 업데이트로 높은 성장 유지 전망. [PUBG 모바일]: BGMI 등 많은 지역에서 트래픽, 매출 동시 상승 추세. PUBG IP 가치 상승. 콜라보 콘텐츠 정교화 되면서 콜라보 파트너사로서 경쟁력 상승. 하반기에도 매출 상승 지속 전망

[다크앤다커M]: 8/1~8/11 한국, 미국, 일본, 튀르키예에서 글로벌 테스트 진행. 8/21 게임스컴 시현 후 4분기 글로벌 론칭. [인조이]: 8/21 게임스컴 시현 후 4분기 Steam Early Access 출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동사의 PUBG 게임은 타게임 대비 수익모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게임성과 글로벌 IP 파워로 출시된 지 7년이 넘은 현재에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동사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반기 글로벌 IP '다크앤다커M'와 지난해 지스타에서 호평을 받은 '인조이'의 신작 모멘텀을 앞두고 있음. 2024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 목표주가를 45만원으로 상향함

####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2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7,070	82.7	6.2	5,508	28.4
영업이익	3,321	152.6	7.0	1,992	66.7
세전계속사업이익	4,581	187.2	-1.6	2,298	99.4
지배순이익	3,419	165.5	-2.3	1,809	89.0
영업이익률 (%)	47.0	+13.0 %pt	+0.4 %pt	36.2	+10.8 %pt
지배순이익률 (%)	48.4	+15.1 %pt	-4.2 %pt	32.8	+15.6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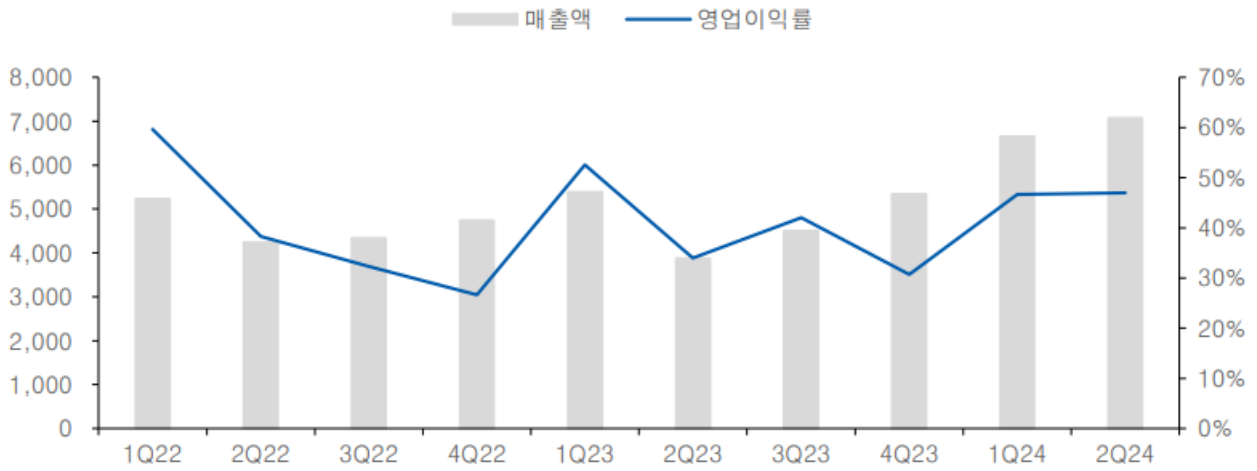
####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8,540	19,106	30,929	35,291
영업이익	7,516	7,680	14,748	19,032
지배순이익	5,002	5,954	11,653	13,915
PER	24.4	14.7	12.1	10.1
PBR	2.3	1.5	2.0	1.7
EV/EBITDA	10.9	6.7	6.4	4.4
ROE	10.3	11.2	19.2	19.2

자료: 유안타증권

## 크라프트론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크라프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헥토이노베이션

상반기 성적 Good, 하반기 Very Good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 2분기 실적

2분기 매출액 778.3억원, 영업이익 112.3억원으로 전년대비 8.4%, 18.0% 성장했다. 주력사업인 IT 정보 서비스(휴대폰 부가서비스)의 매출 성장세(yoy +23.9%, qoq +8.3%)가 이어지고 있다. 기능이 추가된 부가서비스의 채택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자 1인당 지불하는 ASP가 상향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매출도 개선되었다. 반면, 마케팅비용은 유지되고 있다.

### 자회사

동사는 헥토파이낸셜과 헥토헬스케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①헥토파이낸셜의 실적은 매출액 380.5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역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18.7% 성장했다. 하반기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아마존 선정산 서비스가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며, 가상계좌-PG사업-외환라이선스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수혜도 기대된다. ②헥토헬스케어는 지난 7월 10일 중국 최대 국영 의 약기업인 사노팜그룹과 주력제품(드시모네)에 대한 중국 유통계약(5년간, 1,550억원)을 체결했다. 최소금액 계약이며, 사노팜그룹은 약 15만개의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연간 300억원을 큰 폭으로 상회한 매출이 기대된다. 관련 매출이 4분기 시작된다.

### 신사업과 주주환원

동사는 신사업으로 하반기 AI를 활용한 스미싱 대응 BIZ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 런칭할 계획이다. 최근 URL을 이용한 스미싱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스미싱 대응 BIZ 효과는 다음과 같다. 1)앱을 통한 B2C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영역이 확대(기존 B2B 위주)된다. 2)보안앱은 Lock in효과가 높으며, 초기 R&D 비용 이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률 개선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주주환원



정책(별도 순이익의 최소 22% 이상 배당+매년 발행주식총수 1% 소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1,709	2,210	2,630	2,885
영업이익	282	375	356	373
지배순이익	203	211	295	226
PER	9.0	11.6	7.0	7.8
PBR	1.4	1.9	1.4	1.0
EV/EBITDA	3.0	2.7	2.6	1.0
ROE	15.9	15.9	21.3	14.6

자료: 유안타증권



현대차

2024 CEO Investor Day Preview

[출처] 키움증권 신윤철 애널리스트

선제적인 주주환원 눈높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

현대차는 2Q24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및 NDR을 통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주주환원안 제시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 인도법인 IPO에 따른 현대차 본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겹쳐지는 시기인 만큼 일각에서는 연간 수조원 단위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다소 과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당사는 현대차 주주환원 눈높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상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초에 이미 24년 주주환원안을 공개한 기아가 판단의 기준점이 될 필요가 있다. 당사 추정치 기준 24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현대차 14.6조 원, 기아 10.7조 원이다. 올해 기아는 예정대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예상되며, 기말배당지급액 당사 추정치는 약 2조 5,470억 원이다. 이를 주주환원율로 환산하면 28.4%다. 따라서 현대차가 24년 주주환원율을 30% 수준으로 제시하더라도 이는 연초 밸류업 모멘텀으로 현대차 보통주와의 시가총액 괴리를 크게 축소했었던 기아의 주주환원율을 상회하게 되는 셈이다. Toyota를 벤치마킹하여 주주환원율 40%대 달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연평균 약 10조 원의 CapEx와 R&D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대차의 특성상 Toyota 이상의 기대치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올해 현대차 주주환원율을 공격적으로 30%로 가정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 기대치는 9,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4년 3월에 집행된 3,123억 원의 기보유 자사주 소각과 중간, 기말배당 합산 지급액 당사 추정치 약 3조 1,380억 원을 고려한 수치다. 특히 GM은 올해 상반기에 \$10bn이라는 역사적 최대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집행했으나 결국 현대차보다 낮은 YTD 주가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주주환원 규모 확대는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지만 오히려 올해 급격히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했음에도 최근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쟁사 현황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반기 현대차 주가의 최대 변수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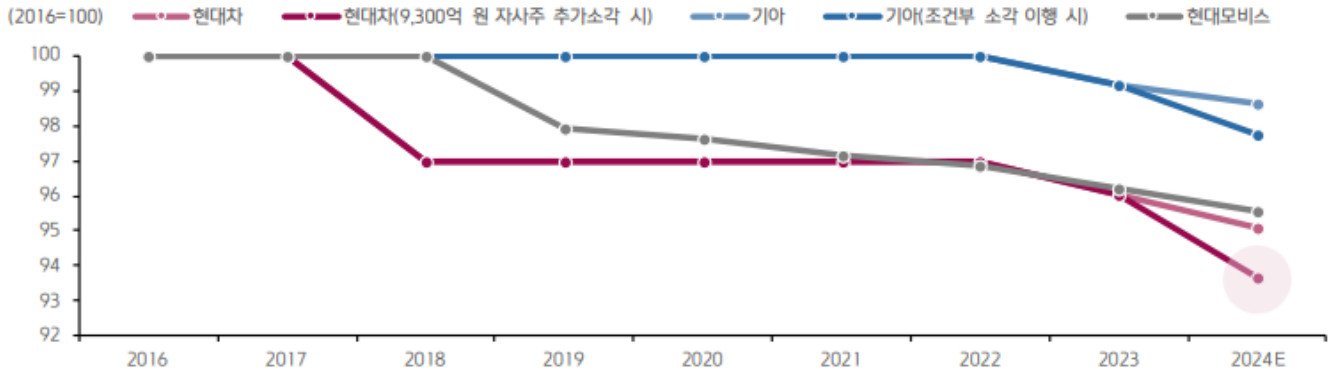
#### HMGMA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망

21년을 마지막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Top10 업체 중 최근 3년간 미국에 신공장 건설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미 대선 직후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생산능력 중요성이 부각될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된 메이저 업체는 HMGMA를 확보한 현대차그룹이 유일할 전망이다. HMGMA 관련 현대차 2024 CEO Investor Day에서의 3가지 관전포인트를 제시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42,151.5	162,663.6	175,546.6	180,417.0
영업이익	9,824.9	15,126.9	15,852.5	15,515.0
EBITDA	14,872.6	20,073.4	20,890.5	20,963.0
세전이익	11,181.5	17,618.7	19,594.1	18,784.2
순이익	7,983.6	12,272.3	14,625.0	13,900.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364.4	11,961.7	13,483.8	12,927.3
EPS(원)	26,592	43,589	49,181	47,627
증감률(% YoY)	49.0	63.9	12.8	-3.2
PER(배)	5.7	4.7	5.0	4.8
PBR(배)	0.51	0.60	0.65	0.55
EV/EBITDA(배)	8.5	7.8	7.8	7.1
영업이익률(%)	6.9	9.3	9.0	8.6
ROE(%)	9.4	13.7	13.8	12.0
순차입금비율(%)	89.5	95.1	79.9	61.5

###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발행주식수 증감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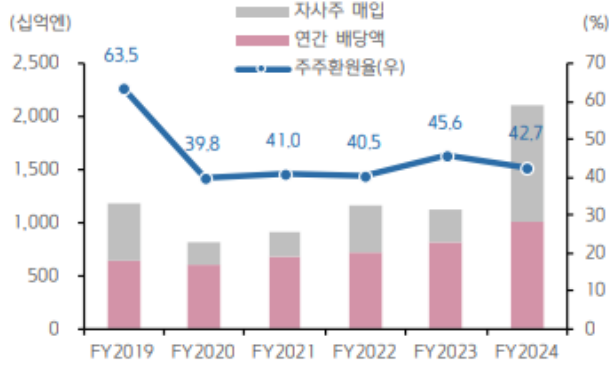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주1) 현대차는 우선주 합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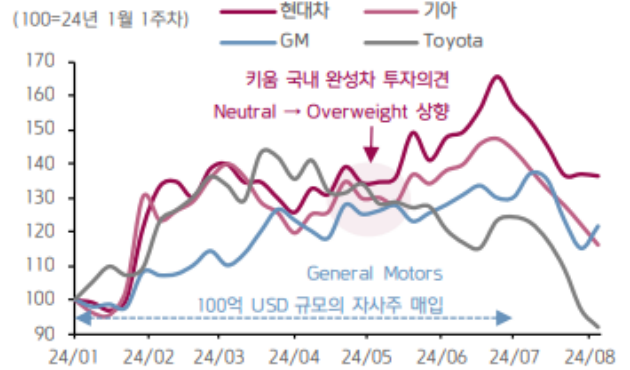
주2) 각 회계연도 기말 기준

### Toyota 주주환원 소요자금 구성 및 주주환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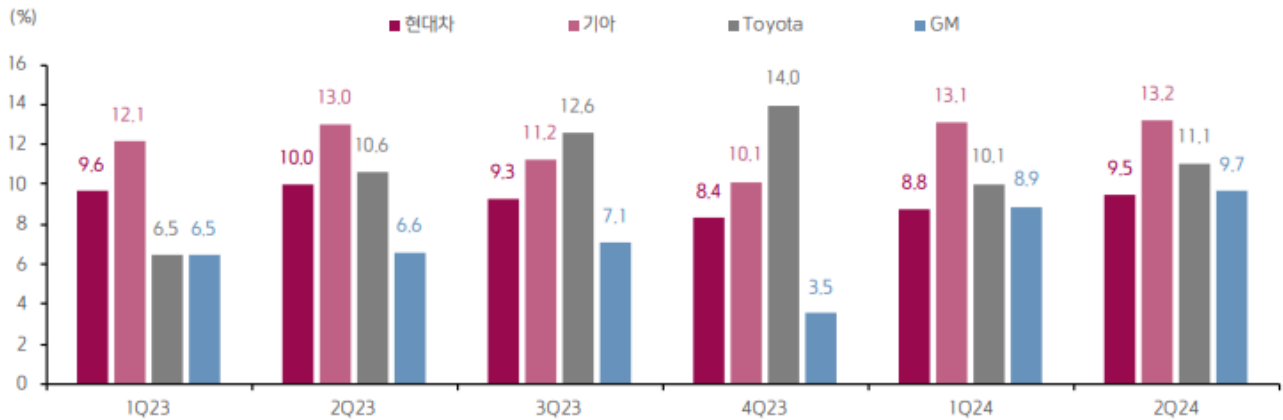
자료: Toyota, 키움증권 리서치

### 현대차, 기아, Toyota, GM 주가 흐름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현대차, 기아, Toyota, GM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파라다이스  
 반전이 필요한 하반기  
 [출처] 키움증권 이남수 애널리스트

## 2분기 영업이익 320억원(yoy -41.7%) 컨센 하회

매출액 2,733억원(yoy -0.7%), 영업이익 320억원(yoy -41.7%, OPM 11.7%)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별도 매출액 1,141억원(yoy -16.8%), 영업이익 140억원(yoy -57.6%, OPM 12.2%), P-시티 매출액 1,314억원(yoy +20.1%), 영업이익 141억원(yoy -17.0%, OPM 10.7%)을 달성했다.

별도 카지노, 호텔은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부진했다. 별도 카지노는 지난해 높은 홀드율 대비 기록이 저조했고, 호텔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좋았으나 ADR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P-시티는 VIP 모객 증가에 따라 매출 성장이 나타났으나, 마케팅비 증가와 일회성 세금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 성수기 시작 7월, 기대보다 주춤

7월 드랍액 5,422억원(yoy +2.3%, mom +1.9%), VIP 방문객 13.0천명(yoy +1.3%, mom -3.4%), 카지노 순매출액 620억원(yoy -1.3%, mom +8.6%)을 마크했다. 국적별 VIP 방문객은 중국 2.9천명(yoy +33.2%, mom +1.5%), 일본 6.1천명(yoy -11.8%, mom -7.4%), 기타 4.0천명(yoy +6.7%, mom -0.4%)을 기록했다.

중국VIP의 방문객 및 인당 스펀딩 동시 성장이 있었지만, 일본VIP 방문객 감소로 여름 성수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일본VIP는 4월 7.4천명이 방문한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일본 VIP는 8월 오봉절 연휴를 통해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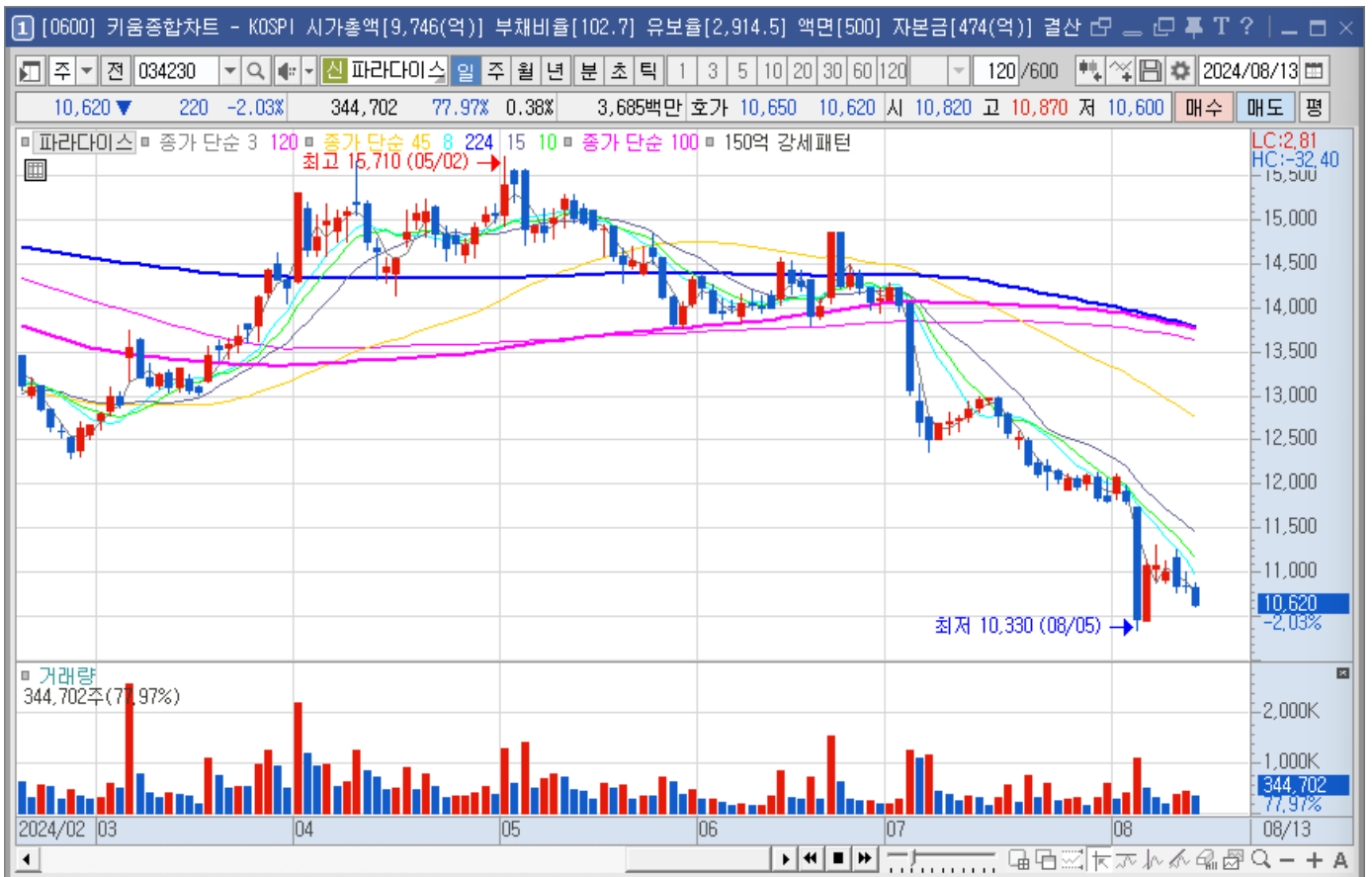
## 반전이 필요한 하반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중국VIP 방문객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다. 월별 드랍액은 최근 12개월 평균 5,650억원이고, 최대~최저 차이도 크지 않고 안정적이다. 최근 2개월 홀드율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드랍액과 마찬가지로 홀드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VIP가 최근 3개월 연속 방문객이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일본VIP 드랍액은 2,512억원이었다. 올 1~7월 평균드랍액은 2,350억원이다. 카지노 개선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 일본VIP의 강점이 유지되고 있을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일본VIP의 다소 둔화된 방문객 흐름과 VIP 모객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펜트업 디맨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호텔을 반영하여 추정치를 하향한다. 이에 투자의견 BUY는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18,000 원으로 하향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587.6	994.2	1,094.3	1,154.4
영업이익	10.4	145.8	158.4	166.4
EBITDA	105.2	228.8	239.3	244.9
세전이익	30.1	91.5	104.7	115.5
순이익	15.8	80.2	85.8	87.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5.3	62.6	60.4	62.9
EPS(원)	279	683	658	686
증감률(% YoY)	흑전	144.9	-3.6	4.2
PER(배)	63.1	19.5	16.5	15.8
PBR(배)	1.2	0.9	0.7	0.7
EV/EBITDA(배)	25.6	9.2	7.6	7.1
영업이익률(%)	1.8	14.7	14.5	14.4
ROE(%)	2.0	4.5	4.3	4.4
순차입금비율(%)	45.8	28.7	22.9	17.2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세대교체로 인한 과도기

### [출처] NH투자증권 이화정 애널리스트

고생 끝에 올 낙을 기다리며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2,000원 유지. 2024년은 저연차 램프업 구간으로 실적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2025년 블랙핑크 단체 활동 재개 및 저연차 수익성 개선에 따른 강한 실적 반등 기대되는 사업자

고연차: 10월 5~6일 진행 예정인 2NE1의 재결합 후 첫 공연도 순식간에 매진. 긴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히트곡이 많은 그룹인 만큼 팬덤뿐 아닌 대중 수요도 강했던 것으로 판단. 이 가운데 지난 8~9일 블랙핑크 8주년 맞이 오프라인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 단체 활동에 대한 아티스트 의지 및 팬덤 수요 모두 이상 무

저연차: 4월 데뷔한 신인 베이비몬스터는 7월 말까지 10회의 글로벌 홀 투어를 진행. 수익활동이 아닌 프로모션에 가까웠던 해당 투어는 단기 수익성 악화 요인이었으나, 여기서 확보된 팬덤이 중장기 수익성 개선의 밑거름임을 잊지 말아야 함. 연말 발매될 정규앨범 판매량에서부터 팬덤 확보에 따른 효과가 확인될 것

### 2Q24 Review: 일회성 요인 총집합

2분기 연결 매출액 900억원(-43% y-y) 및 영업적자 109억원(적자전환 y-y)으로 어닝 쇼크 기록.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한 탓

베이비몬스터 데뷔 프로모션 초기비용이 당사 예상보다도 큰 83억원대에 달했던 가운데, 지난 분기 가 정산 매출로 인식했던 트레저 일본MD 관련 매출이 확정 매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로열티 역매출 발생. 설상가상으로 작년 블랙핑크 월드투어 당시 협찬사로부터 미지급된 협찬금 21억원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569.2	435.6	684.8	772.2
증감률	45.5	-23.5	57.2	12.8
영업이익	79.5	6.9	97.1	124.9
증감률	86.6	-91.3	1,307.2	28.6
영업이익률	14.0	1.6	14.2	16.2
(지배지분)순이익	61.3	4.6	51.1	63.6
EPS	3,285	244	2,732	3,402
증감률	81.2	-92.6	1,019.7	24.5
PER	15.5	145.2	13.0	10.4
PBR	2.0	1.4	1.3	1.1
EV/EBITDA	9.9	15.3	5.6	4.3
ROE	14.0	1.0	10.4	11.6
부채비율	26.8	22.7	20.4	18.3
순차입금	-90.1	-78.8	-122.0	-201.3

단위: 십억원, %, 원, 배

